

##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실태와 영향요인 분석

박수경

본 연구는 1990년대 들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실태를 살펴보고,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 산재보험 재활서비스 체계의 강화하기 위한 개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자는 1996년과 1997년 산재보험 장해보상금 종결자 중 신규장해판정자 1,060명이며 조사방법은 전화면접조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를 보면, 첫째,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율은 자영업을 합쳐 약 28.6%로 전체 응답자의 약 1/3에도 못미치는 낮은 수준이었다. 둘째, 신체적 손실을 나타내는 장해등급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능력정도 역시 재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취업에 있어 신체적 손상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재활공학서비스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셋째, 재취업에 있어 신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는 시기나 자신의 장애를 인식하는 정도 등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재취업에 있어 사회심리적 재활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여부는 재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의 비효과성 측면과 더불어 직업재활프로그램의 저조한 참여에서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함의는, 우선적으로 현재의 산재보험에서 투자하는 재활사업비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재활공학서비스의 연구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고, 현재의 산재보험 직업재활훈련체계를 재정립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등의 노력과, 사회심리재활서비스의 산재보험 수가화를 통한 확대, 개별상담원 도입 등의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 I. 서론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여가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해도 고용은 여전히 성인들에게는 소득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감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장애가 있는 성인들의 경우, 고용은 아직도 성취해야 할 최대의 목표인 동시에 요원한

\*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희망이기도 하다.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실업율은 27.4%(남성 24.7%, 여성 34.1%), 비장애인은 2.4%(남성 2.7%, 여성 1.9%)로 무려 장애인의 실업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10배 이상 된다. 한편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살펴 보면, 장애인의 경우 31.4%가 농어업, 단순노무직이 23%로 취업장애인의 과반수를 넘는다. 반면 비장애인의 경우 전문직 및 사무직 27.8%, 기능직 26.6%, 서비스직 21.6%로 나타나 장애인과 상당히 대조적인 분포를 보인다. 또한 종사상의 위치에서도 장애인의 경우 임금근로자 중 일용직에 해당하는 비율이 14.1%인데 반해 일반인은 8.9%로 장애인의 불안정한 취업상태를 보여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IMF 이후, 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없이 장애인의 취업은 그 어느 때보다는 힘겨운 목표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IMF 체제 직후인 1998년 2월 현재, 의무고용을 2%의 약 1/4정도 수준인 0.46% 정도로 저조한 실정이며(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8), 구인업체의 수(전월 대비 36.3%)나, 구인수(전월 대비 38.3%)가 각각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구직장애인 뿐만 아니라 이미 취업한 장애인들도 실직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사무관리직으로의 진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장애인의 취업이 다시 고용안정성이 낮은 불안정한 직종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신보수주의가 득세하던 미국이나 영국에서 장애를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국한시키던 사회적 진화론의 대두나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장애인이 노동시장의 불안정한 주변부로 밀려났던 경험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더욱이 향후 실업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장애인의 취업문제는 더욱 심각한 국면에 접할 수 밖에 없다.

한편, 해마다 산재발생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산재로 인해 영구적인 신체장애를 입게 된 근로자는 199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1997년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해 영구적인 신체장애를 입게 된 근로자가 43.2%로,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 10명 중 4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노동연구원, 1998).

산재장애인의 경우, 산재사고로 인해 중도에 장애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들의 재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산재 이전 직장으로의 복귀이다. 하지만 산재사고의 76% 정도가 주로 신체적인 활동이 많은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발생하므로, 산재발생 이후 원직장이나 원직종으로의 복귀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산재장애인의 경우, 과거에 직장생활을 한 경험이 있으므로 이들에게 있어 재취업은 경제적 의미 이상이며, 따라서 가정생활 및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 또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심대하다. 하지만 현재 산재보험 보상체계는 의료적 치료나 현금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산재장애인의 직장복귀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급여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재활체계를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 산재장애인 재활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필요성의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산재장애인의 경우, 일반장애인 재활정책이나 서비스와 차별화된 재활정책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할 만한 근거는 없다. 하지만 산재장애인을 위한 재활정책은, 일반장애인에 비해 대상층이 명확하고 산재보험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시행되므로 이의 발전은 일반 장애인복지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재장애인의 재취업 실태를 살펴보고,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여 향후, 산재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재활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데 있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실태를 파악하고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산재보험 재활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재활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고,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장애인 고용차별의 원인에 대한 선행연구

### 1. 장애인 고용차별 원인에 대한 시각

여러 선행 연구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크게 개인적인 특성, 사회적인 특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선우(1997)는, 일반장애인의 재취업 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주 여부, 결혼상태, 가구원수, 교육정도, 직업서비스 수혜여부, 자격증, 장애유형, 주관적 건강상태, 차별경험, 정서적 부담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장애인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Crip(1990)은 산재장애인과 같은 중도장애인인 척수손상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척수손상자들의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교육정도, 척수손상정도, 손상 이전의 직업적인 관심, 연령, 장애와 관련된 의료문제, 장애기간, 재정적 비유인, 성별, 고용주의 태도 등 개인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을 지적하였다.

한편, McCarthy(1988)는, 작업장에서 장애인들이 느끼는 고용불평등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임상적 서비스 모델(Clinical Services Model), 사회적 체계모델(Social Systems Model),

경력개발 모델(Career Development Model) 3가지로 구분하였다. 임상적 서비스 모델은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로서 장애인들의 실업이 장애인들 개인의 실패때문으로 보며, 장애인의 고용불평등의 원인은 기능적 제한성(Functional limitation), 낮은 근로동기(Poor motivation), 사회적 기술의 부족(Social skill deficits), 직업적 기술의 부족(Occupational-skill deficits), 구직기술의 부족(Job-search-skill deficits) 등으로 본다. 하지만 여기서 개인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낮은 근로동기 뿐이다.

반면 사회환경적 모델에서는 고용불평등에 대한 원인들로서 개인적인 요인들보다는 광범위한 환경적 장애요인들을 지적해왔다. 이러한 사회환경적인 요인들로는, 건물 등의 일반환경, 특히 건축물이 작업환경에 대한 비접근성(inaccessibility), 접근이나 이용이 가능한 교통수단의 부족, 장애로 인한 소득 및 급여로 인한 근로동기 저하, 엄격한 노동시장의 조건과 정책, 고용주와 동료직원의 편견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환경적 모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불평등 원인에 대한 전략은, 체계적인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사회변화를 위한 장애인의 권리운동을 제시한다. 하지만 사회환경모델에서는 동일한 사회조건에서 나타나는 장애인 각 개인의 고용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경력개발모델에서는 장애인들의 고용불평등의 원인을, 장애인들이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키는 대신 다른 일자리를 찾는 단기적인 시각, 소홀히 취급되고 격리된 작업의 사회화로 장애인들은 노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가지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직업 프로그래밍에 대한 일방적이고 분리된 접근으로 장애인이 고용되었다 해도 고용된 이후 실제 적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고용된 장애인의 적용에 대해 협소하게 개념을 정의했을 때 장애인 직장생활의 발전 제한성, 자신의 경력활동과 결과에 대한 불충분한 자기 책임화 등을 고용불평등의 원인으로 본다. 이 모델은 장애인에 대한 잠재적인 태도의 영향까지 고려함으로써 임상적 서비스 모델이나 사회체계 모델보다 더 분석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으나, 경력개발 모델에서 제시하는 원인들은 고용불평등에 직접적이기 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 2 장애인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장애인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요인과, 물리적 환경, 장애인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사회환경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장애인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 1) 개인적 요인

### 가) 신체적 요인

일반적으로 산재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인들에 재취업에 있어 직면하고 있는 당면문제는 현재의 재활시스템 하에서는 신체적인 장애가 취업 및 취업형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이 취업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조사대상자의 50.9%가 '장애가 심해서 일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산재장애인 역시,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1999)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32.5%가 '장애로 인해 일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박수경(1997)의 연구에서도,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과 노동력상실도로 나타났다. 즉, 산재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환산한 노동력 상실정도가 재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심리적 요인(자존감, 장애에 대한 인식정도), 사회적 요인(가족지원, 사회적 지원, 직업재활훈련 경험 유무)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정도는 장애인의 재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간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간접적인 영향은, 장애정도나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이 심해지는 경향으로, 장애인에 대한 고용주나 직장동료들의 사회적 편견 역시, 신체적인 손상 못지 않게 장애인의 고용을 어렵게 만든다. Yuker et al(1966)에 의하면, 신체상의 손상정도에 따라 편견의 정도가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가장 심하다. 결국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보면, 손상이나 장애의 가시성(visibility)은 사회의 편견을 증가시킴을 알 수 있다.

한편, 보장구나 일상생활용구로 보완된 신체기능이라 할 수 있는 일상생활능력정도 역시,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하지 장애인이나 상지 장애인의 경우 보장구로 신체적 기능이 보완되어 종사하려는 업무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면, 취업의 가능성은 훨씬 높아질 수 있다.

### 나) 심리적 요인

장애 발생 이후에는 실제 장애정도보다 장애에 대한 인식수준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Belgrave(1991)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에 대한 인식수준은, 장애에 대한 적응을 예측하는 심리사회적인 변수들, 예를 들어 사회적 지원, 자존감, 장애에 대한 인식 중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Lee et al.(1986)에 따르면, 산재장애인들의 경우 손상정도보다는 손상정도에 대한 인식이 사회심리적 적응이나 직업상의 적응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재장애인의 손상정도가 심할수록 사회생활에 적응력이 낮은 것은, 손상정도로 인한 직접적인 기능상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기 보다는 손상된 부분에 대한 인식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

수 있다.

## 2) 사회적 요인

### 가) 물리적 접근성

생태학적 또는 정치 모델 지지자는 장애인들이 사회이 여러 측면들에 민감하기 때문에 고용 불평등에 대한 원인들로서 개인적인 요인들보다는 광범위한 환경적 장애요인들을 지적해 왔다. 물리적 환경(Physical setting)은 장애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중도에 자신의 능력을 잃게 되었거나 제한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물리적 환경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물리적 환경들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건물 등의 일반환경, 특히 작업환경에 대한 비접근성(inaccessibility)을 들 수 있으며, 다음으로는 장애인들이 접근가능하고 이용가능한 교통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접근하기 어려운 건물이나 작업환경에 대한 대책 이전에 갖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McCarthy, 1988).

장애인에게 있어 물리적 접근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수단은 사회생활 및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1998)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직장생활이 힘들다'고 답한 취업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장생활의 방해요인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40%가 신체적인 제약, 19%가 직장의 물리적 작업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여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 사회적 태도

다른 원인들에 비해 자주 표현되지 않았다 해도, 작업장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는 장애인의 직업상의 문제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지금까지 고용주나 동료들에 의한 무시, 무경험, 상호작용시 긴장, 편견 등은 건축물이나 작업장의 비접근성, 교통수단, 장애로 인한 소득과 급여로 인한 동기 저하, 엄격한 노동시장 조건 및 정책 등 보다 더 많은 연구자나 전문가들에 의해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McCarthy, 1988).

장애인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고용주들의 부정적인 태도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아무리 고용의 불평등을 개인적인 책임으로 귀착시키려는 연구자라 해도 고용주나 동료들이 이러한 소수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199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산재장애인들의 경우 사람들의 부정적인 태도가 자신의 사회활동에 '매우 방해가 된다'고 느끼는 비율이 약 40%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인 손상정도가 심한 장애인일수록 사람들의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 사회활동에 더 많은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태도는 재취업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 다) 직업재활서비스

산재장애인의 경우 직업재활은, 장애로 인해 손상된 능력을 최대화하여 다시 원직에 복귀시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Rosenfield(1992)는 지역사회센터에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만성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업재활서비스의 경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정신과적 치료는 삶의 질과 거의 관련이 없으며, 직업훈련에 관한 한 재활프로그램이 정신과적 치료보다 삶의 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밝힌 바 있다. 특히, 직업재활서비스 중 일에 기대감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은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직업재활프로그램은 장애인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기술을 습득한다는 실질적인 의미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이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재활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이미 독일에서 증명된 바 있는데, 산재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한 결과, 노동능력상실도를 20년 동안 32.9%에서 20.6%로 감소시켜 성공적인 효과를 거둔 바 있다(Aulmann, 1996). 재활서비스의 이용 여부 역시, 산재장애인의 직장복귀나 사회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표본의 추출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산재장애인으로,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산재보험장해보상금 종결자 중 신규장해판정자인 56,802명이다.

표본의 추출방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산재보험장해보상금 종결자 중 신규장해판정자인 명단에서 10명에 1명씩 체계적으로 표집하는 체계적 방법(Systemic Sampling)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총 표본수는 1,000명이며, 표본의 구성은 산재등급 1-3급 장애인은 100명, 4-7급 장애인은 400명, 8-14급 장애인은 500명을 유의할당하였다<sup>1)</sup>. 하지만 실제의 표본 추출은 1,000명의 5배 이상인 5,680명을 초과표집(oversampling)하였는데, 이는 명단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거나, 산재장애인의 이주가 빈번하여 통화하기 어렵고, 전화면접 특성상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1) 산재장애발생율에 따라 산재장애등급 1-3급, 4-7급, 8-14급 장애인을 비례할당표집하지 않은 이유는, 산재장애등급 1-3급, 4-7급 근로자의 비율이 8-14급에 비해 너무 적기 때문으로, 재활에 있어 중요한 등급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의할당하였다.

많을 것이라는 판단때문이다. 또한 취업집단과 비취업집단의 분석을 위해 취업한 산재장애인의 최소한의 비율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본 조사의 구체적인 표본의 구성과 실제표본수는 다음과 같다.

<표 1> 표본의 구성

(단위: 명, %)

산재등급	표본의 구성	실제 조사된 표본수
1-3급	100 (10.0)	114 (10.7)
4-7급	400 (40.0)	411 (38.8)
8-14급	500 (50.0)	535 (50.5)
계	1,000 (100.0)	1,060 (100.0)

## 2. 조사방법 및 조사과정

본 조사는 전화면접조사방법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실사는 전문 사회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 연구소가 담당하였다. 본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가 장애인이라는 특수층이라는 점때문에, 면접원에 대한 교육은 본 연구원의 연구담당자가 직접 실행하였으며, 면접교육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면접시 필요한 주의사항과, 산재보험과 산재장애인에 관련된 전문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교육시 이를 전달하였다. 또한 본 조사는 산재장애인이라는 특수층에 대한 조사인 만큼 설문지의 내용이 용이한 지를 검토하기 위해 산재장애인 20명에게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조사기간은 1998년 9월 17일부터 1998년 9월 30일까지였다.

## 3. 측정도구

### 1) 종속변인

재취업 여부: 재취업상태는 CIQ(Community Integration Questionnaire)의 생산적 활동에의 참여정도를 측정하는 단일항목을 사용하였다. 이 항목은 산재장애인의 고용상태를, 1=상시고용, 2=시간제 고용, 3=자영업, 4=현재 실업 중이지만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다, 5=현재 실업 중이지만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다, 6=직업훈련 또는 학교에 다니는 중이다, 7= 자원봉사 일을 하고 있다 8=장애나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다 9=기타로 구성된다. 분석에는 1, 2, 3을 재취업된 상태로 구분하여 '1'로, 4, 5, 6, 7, 8, 9을 미취업상태로 보아 '0'로 재코드화하였다.



## 2) 독립변인

### ① 개인적 특성

신체기능: 장애정도는 산재보험법상의 산재장해등급을 의미하며 1-14등급으로 구분된다. 일상생활능력정도는 ADL(Activity Daily Living Scale)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세부항목은 세수/양치질, 목욕/옷갈아입기, 화장실사용/앉고 일어서기, 집안에서의 이동, 산책, 쇼핑,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구성된다. 응답범주는 1=전적인 도움이 필요(보장구나 남의 도움이 다 필요한 경우), 2=부분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보장구나 남의 도움 중 한가지가 필요한 경우), 3=혼자 스스로 할 수 있음(보장구나 남의 도움 들 다 필요없는 경우)이다.

심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은 장애를 수용하는 시기와 장애에 대한 인식정도 2가지로 질문하였다. 장애를 수용한 시기는 자신의 장애를 알게 된 후, 자신이 장애인임을 인정하기 까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했는지를 질문하는 단일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응답범주는 1=6개월 이내, 2= 6개월 이상-1년 미만, 3=1년 이상-2년 미만, 4=2년 이상 이다.

장애에 대한 인식수준은, 현재 자신의 장애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로 질문하는 단일항목으로, 응답범주는 1=매우 심함, 2=조금 심함, 3=별로 심하지 않음, 4=전혀 심하지 않음으로 구성된다.

사회환경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은, 사람들이 장애인에게 느끼는 부정적인 태도와 물리적 환경의 미비가 자신의 사회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 지를 질문하는 2항목으로 구성된다. 응답범주는 1=전혀 안한다, 2=거의 안한다, 3=때때로 한다, 4=자주 한다 로 구성된다.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여부: 산재 이후 직업훈련을 받아본 경험을 1=예, 2=아니오 단일항목으로 질문하였다.

## 4. 분석방법

회수된 설문지는 총 1,080부이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다 완성하지 못한 20부를 제외한 1,060부를 부호화작업과 오류검토작업을 거쳐, SPSS/PC Window 7.5 Version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본 조사에서 사용한 통계방법은 Frequency, Crosstab Analysis,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 IV.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실태와 영향요인 분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분포를 보면, 남자가 87.2%, 여자가 12.8%로 남자가 대부분이고, 연령분포는 40대가 30.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가 27.5%, 30대가 21.7%, 60세 이상과 20대 이하가 각각 10%로 나타나, 30대 이상이 전체 응답자의 약 90%를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35%로 가장 많았지만, 초등학교 이하 졸업자가 32.8%, 중학교 졸업자가 24.9%를 차지하여 중학교 이하의 졸업학력을 가진 경우가 57.7%나 되었다. 반면, 전문대 이상 졸업자는 7.3%에 불과하여, 전반적인 교육수준은 낮은 편이었다. 이렇게 산재장애인의 교육수준

<표 2> 인구학적 특성

(단위: %)

인구사회학적 특성	전체	장애등급		
		1-3급	4-7급	8-14급
<b>성별</b>		N=114	N=411	N=535
남자	87.2	93.9	85.4	87.1
여자	12.8	6.1	14.6	12.9
<b>연령</b>		N=114	N=411	N=535
29세 이하	10.1	7.0	8.8	11.8
30세 이상 ~ 39세 이하	21.7	22.8	18.5	23.9
40세 이상 ~ 49세 이하	30.7	23.7	32.4	30.8
50세 이상 ~ 59세 이하	27.5	33.3	29.0	25.2
60세 이상	10.0	13.2	11.4	8.2
<b>교육수준</b>		N=114	N=407	N=529
초등학교 이하 졸업	32.8	30.7	39.3	28.2
중학교 졸업	24.9	21.9	26.3	24.4
고등학교 졸업	35.0	41.2	27.5	39.5
전문대 이상 졸업	7.3	6.1	6.9	7.9
<b>결혼상태</b>		N=113	N=407	N=533
미혼	12.2	12.4	11.1	12.9
기혼	82.5	86.7	82.6	81.6
기타	5.3	0.9	6.4	5.4

주: 무응답 제외

이 낮은 것은, 산재발생율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평균 교육수준이 낮은 데서 기인한 결과이다. 결혼상태를 보면, 미혼이 12.2%, 기혼이 82.5%를 차지하여 10명 중 약 8명 정도는 한 가정의 가장인 것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산재장애인 재취업 실태

### ① 재취업실태

재취업실태를 살펴보면, '현재 직장에 취업 중'이라고 답한 경우가 25.7%, 자영업이 2.9%,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28.6%)'가 전체 응답자의 1/3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나, 10명 중 약 7명 정도는 산재로 인해 장애를 입은 이후에는 재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산재장애등급별로 살펴보면, 1-3급 장애인의 경우 일반회사에 취직한 경우가 5.4%인데 반해 4-7급 장애인은 15.6%, 8-14급 장애인 38.2%로 나타나, 일반고용율이 4-7급 장애인은 1-3급 장애인의 약 3배, 8-14급 장애인은 약 7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1-3급 장애인은 1.8%, 4-7급 장애인은 1.2%, 8-14급 장애인은 4.5%로 나타나, 8-14급 장애인의 경우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1-7급 장애인의 2배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취업실태

(단위: %)

취업실태	전체 (N=1,025)	장애등급		
		1-3급 (N=111)	4-7급 (N=404)	8-14급 (N=510)
취업	25.7	5.4	15.6	38.2
자영업	2.9	1.8	1.2	4.5
현재 실업중이지만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음	24.1	6.3	24.5	27.6
직업훈련원, 학교에 다님	0.6	-	0.7	0.6
자원봉사일	0.2	-	0.2	0.2
현재 실업 중이지만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음	7.9	6.3	8.9	7.5
장애나 건강상 일할 수 없음	32.5	69.4	45.0	14.5
기타	6.2	10.8	3.7	6.9

한편, 미취업자 7명 중 약 3명 정도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4명 정도는 일을 할 의사가 없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거나(24.1%)', '직업훈련원이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0.6%)' 등과 같이 구직활동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는 24.7%인 반면, '현재 실업중이지만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은 경우(7.9%)나 '장애나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32.5%)와 같이 취업할 의사가 없거나 취업을 할 수 없는 비율이 40.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활동정도를 산재 장애등급별로 분석해 보면, 1-3급 장애인의 경우 4-14급 장애인에 비해 구직하려는 비율이 1/4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에 반해, '실업중이지만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7.9%로 나타났으며, 이를 장애등급별로 보면, 1-3급이 6.3%, 4-7급이 8.9%, 8-14급 7.5%로 비슷한 수준으로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일정비율의 산재장애인 재취업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나 건강상으로 일할 수 없다'고 답한 경우는, 1-3급 장애인이 69.4%, 4-7급 장애인이 45%, 8-14급 장애인은 14.5%로, 8-14급 장애인에 비해 1-3급 장애인은 약 4.8배, 4-7급 장애인은 약 3배 정도 더 많았다.

## ② 직업분포

산재 전후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산재 이후 무직비율이 67.7%나 되어 산재장애인의 약 2/3는 산재 이후, 아무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전후의 직업분포를 보면, 산재 이전에는 신체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능직(33.4%)나 단순노무직(28.7%), 장치기계조립(17.6%)의 비율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던 반면, 산재 이후에는 기능직(8.6%), 단순노무직(6.9%), 장치기계조립(5.2%)에 종사하는 비율이 약 20%로 산재이전에 비해 1/4수준으로 낮아졌다. 반면, 신체활동이 비교적 적게 필요한 전문관리직이나 사무직, 서비스·판매직의 경우 산재 전후의 종사비율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미미했으며, 산재 이후에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24%를 차지하였다.

산재 전후의 산재장애등급별 직업분포를 보면, 1-7급 장애인의 경우 재취업하지 못한 비율이 83.1%로, 10명 중 8명 이상은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급 장애인의 직업분포를 보면, 산재 이전 기능근로자(31%)나 단순노문직(31.8%)의 비율이 앞도적으로 높았던 반면, 산재 이후에는 이들 대부분이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8-14급 장애인들의 경우, 무직율이 52.2%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산재 이전 기능근로자(35.7%)에 종사하던 산재장애인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장애인이 산재이후에도 기능직에 종사하는 것(14.5%)으로 나타났고, 단순노무직(25.8%)의 경우도 산재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여 10.6% 만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산재발생이 적은 전문관리직이나, 사무직, 서비스·판매직의 경우 산재전후의 종사율의 차이가 비교적 적었다.

<표 4> 장애등급별 직업분포

(단위: %)

구분	전체		1-7급		8-14급	
	산재 이전 (N=1,054)	산재 이후 (N=1,039)	산재 이전 (N=522)	산재 이후 (N=520)	산재 이전 (N=532)	산재 이후 (N=519)
전문·관리직	0.9	0.4	1.0	-	0.9	0.8
사무직	2.9	1.7	2.7	1.7	3.2	1.7
서비스·판매직	3.9	1.5	3.6	1.2	4.1	1.9
기능근로자	33.4	8.6	31.0	2.7	35.7	14.5
장치기계조립	17.6	5.2	18.8	2.9	16.4	7.5
단순노무직	28.7	6.9	31.8	3.3	25.8	10.6
농·임·수산	3.1	1.2	3.3	0.4	3.0	1.9
자영업	1.4	2.0	1.5	1.2	1.3	2.9
학생	-	0.4	-	0.6	-	0.2
기타	8.3	4.4	6.3	3.1	9.6	5.8
무직	-	67.7	-	83.1	-	52.2

### 3)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재취업간의 관계

성별에 따른 취업율을 살펴보면, 서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재사고 이후 남자가 32.6%, 여자가 20.6%로 남자의 취업율이 여자보다 약 1.6배 높아, 성별과 재취업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산재사고를 당했을 경우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남자에 비해 적은 데서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연령과 재취업간의 관계를 보면, 30대를 기점으로 점차 취업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연령에 따른 재취업율을 살펴보면, 30대의 취업율이 45.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0대 이하(42.1%), 40대(32.3%), 50대(22.6%), 60대(7.5%) 순이었다.

또한 교육수준과 재취업 역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수준에 따른 재취업율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율이 42.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문대 이상 졸업자의 취업율은 39%로 고등학교 졸업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학교 졸업자의 취업율은 30.3%였으나, 초등학교 졸업자는 17.5%로 취업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반면, 결혼상태와 재취업간의 관계를 보면,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혼과 미혼의 취업율이 각각 31.3%와 34.4%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5>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재취업간의 관계실태

(단위 : %)

구 분	취업	미취업	X <sup>2</sup>	df	p
<b>성별(N=1,060)</b>					
남자	32.6	67.4	7.959	1	.005**
여자	20.6	79.4			
<b>연령(N=1,060)</b>					
29세이하	42.1	57.9	66.297	4	.000***
30-39세	45.7	54.3			
40-49세	32.3	67.7			
50-59세	22.6	77.4			
60세이상	7.5	92.5			
<b>교육수준(N=1,060)</b>					
초등학교이하	17.5	82.5	56.913	3	.000***
중학교 졸업	30.3	69.7			
고등학교 졸업	42.9	57.1			
전문대졸업 이상	39.0	61.0			
<b>결혼상태(N=1,053)</b>					
기혼	31.3	68.7	5.244	2	.073
미혼	34.4	65.6			
기타	17.9	82.1			

\*p<.05, \*\*p<.01, \*\*\* p<.001

주 : 무응답은 제외함.

#### 4) 장애인의 산재이후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6>는 장애인의 재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결과이다.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경쟁고용을 통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직면하는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 신체기능을 필요로 하는 건축업, 제조업 분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산재로 인한 장애발생 이후 다시 원직으로 복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박수경, 1997).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고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 지를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를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만을 투입한 결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에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낮을 수록,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기혼이 미혼보다 재취업할 확률이 높았다.

<표 6> 장애인의 산제이후 재취업여부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 변수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모형 IV		모형 V		모형 VI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u>사회인구학적요인</u>												
성별	0.7797 (0.3088)	2.1808*	0.9835 (0.3441)	2.6737**	0.6673 (0.3254)	1.9491*	0.7583 (0.3177)	2.1346*	0.7410 (0.3114)	2.0979*	0.8038 (0.3644)	2.2341*
연령	-0.0624 (0.0097)	0.9395***	-0.0514 (0.0110)	0.9404***	-0.0520 (0.0105)	0.9493***	-0.0639 (0.0103)	0.9381***	-0.0645 (0.0099)	0.9375***	-0.0577 (0.0120)	0.9440***
교육수준	0.0738 (0.0307)	1.0766*	0.0726 (0.0345)	1.0753*	0.0480 (0.0339)	1.0491	0.0800 (0.0330)	1.0833*	0.0728 (0.0311)	1.0755*	0.0635 (0.0382)	1.0656
결혼상태	-1.2785 (0.2661)	0.2785***	-1.3782 (0.3080)	0.2520***	-1.4054 (0.3013)	0.2453***	-1.3367 (0.2827)	0.2627***	-1.2081 (0.2690)	0.2988***	-1.4191 (0.3500)	0.2419***
<u>신체적 요인</u>												
장애정도			0.2426 (0.0285)	1.2746***							0.1950 (0.0322)	1.2153***
일상생활 능력정도			0.7557 (0.3062)	2.1292*							0.5355 (0.3425)	1.7083*
<u>심리적 요인</u>												
장애에 대한 수용 시기					-0.1741 (0.0792)	0.8402*					-0.1746 (0.0900)	0.8398
장애에 대한 인식 정도					-0.9679 (0.1090)	0.3799***					-0.4960 (0.1325)	0.6089***
<u>사회적 요인</u>												
물리적 환경							-0.3011 (0.0967)	0.7400**			-0.1062 (0.1202)	0.8993
사회적 태도							-0.4418 (0.1042)	0.6429***			-0.1985 (0.1237)	0.8199
<u>직업훈련실시</u>												
									-1.6647 (0.7609)	0.1892*	-1.3848 (0.8777)	0.2504
상수	0.5807 (0.6557)		-3.9559*** (1.1462)		3.9574*** (0.8062)		2.3231 (0.7408)		0.7409 (0.6619)		-0.1653 (1.4394)	
Model Chi-Square	87.038***		206.990***		172.269***		139.737***		92.936***		221.940***	

\* p< .05 \*\* p< .01 \*\*\* p< .001

2단계에서는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신체적 요인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장애정도, 일상생활능력정도로 나타났다. 즉,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장애정도가 낮을수록, 일상생활능력정도가 높을 수록 재취업되는 가능성이 높았다.

3단계는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이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살펴보았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에서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장애에 대한 수용시기, 장애에 대한 인식정도가 유의하게 나

타났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낮을 수록, 기혼이 미혼보다 재취업정도가 높았으며, 또한 장애에 대해 빨리 수용하고 인정할수록, 자신의 장애에 대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록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았다.

4단계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적 요인을 투입하였다. 사회적 요인은 장애인을 위한 물리적 편의시설, 장애에 대한 사회의 태도로 구성된다. 분석결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태도가 재취업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물리적 환경이 방해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록, 장애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태도가 방해된다고 느끼는 경향이 낮을 수록 재취업할 가능성이 커짐을 보여준다.

5단계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통제한 가운데, 직업훈련 경험이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장애인의 직업훈련 실시정도가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예상과는 달리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장애인이 훈련을 받은 경우보다 재취업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현재의 직업재활체계는 중증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어 1-7급의 중증장애인의 경우 8-14급 장애인보다 직업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더 높기 때문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즉, 장애등급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직업재활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8-14급 경중장애인이 재취업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현재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은 신체적 손상정도인 장애등급에 따라 재취업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의 직업재활서비스는 재취업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6단계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요인, 직업훈련 실시 여부를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결혼상태, 장애정도, 일상생활능력정도, 장애에 대한 인식정도가 재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낮을 수록, 미혼보다는 기혼이, 장애정도가 낮을 수록, 일상생활능력정도가 높을수록, 장애에 대해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할 수록 재취업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현재의 재활시스템 하에서는 신체적 손실을 나타내는 장애등급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능력정도 역시, 재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는, 재취업에 있어 신체적 손상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재활공학서비스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둘째, 산재장애인이 산재장애인의 신체기능이 재취업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고 인식하는 정도 등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신체적 제한, 심리적 요인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직업재활서비스여부는 재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직업재활프로그램이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



고 있어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경증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데서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과의 요약

1990년대 들어 매년 3만여명의 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장애인이 되고 있으며, 더욱이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중대재해근로자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재활에 대한 관심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중도에 신체장애를 입게 된 근로자의 경우 재취업문제는 이들 의 사회복지에 있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재활정책 및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실태를 살펴보고,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 산재보험재활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실태를 보면, 재취업율은 28.6%로 약 10명 중 7명은 산재사고 이후 재취업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장애인의 구직의사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미취업자 7명 중 약 3명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었지만, 나머지 4명은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나타났다. 산재 전후의 직업분포는, 산재 이전에 신체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능직이나 단순노무직, 장치기계조립의 비율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던 반면, 산재 이후에는 약 20%로 산재 이전에 비해 약 1/4수준으로 낮아져 산재 이후, 원직으로의 복귀가 매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신체적인 요인인 장애정도와 일상생활능력정도, 장애에 대한 인식정도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물리적 환경이나 장애에 대한 사회적 태도 등은 인구학적 특성만을 통제한 경우에는 재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신체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에 비해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현재의 직업재활훈련은 참여가 저조하여 그 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재취업 촉진을 위한 산재보험 재활서비스 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 논의 및 제언

### 1) 산재보험 재활서비스의 투자 확대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장애정도, 일상생활능력정도와 같은 신체적인 요인들 뿐만 아니라 장애에 대한 수용시기와 자신의 장애에 대한 인식수준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물리적 환경이나 사회적 태도 등의 사회환경적 요인들도 재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산재장애인의 경제적 보상이나 의료적 치료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현재 산재보험에서 제공하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적 치료)와 장애급여가 있으며, 희망자에 한해서 제공되는 직업훈련과 자립작업장, 생활정착금대부와 자녀학자금 지원 등이 있다. 그러나 산재장애인에게 필요한 직업훈련이나 사회재활서비스의 경우 지극히 명목적인 수준에서 제공되고 있다. 실제로 산재보험 기금에서 재활서비스에 투자하고 있는 비율은 1996년 현재, 0.7%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중 생활정착금과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이 차지하는 투자비가 2/3를 차지하는 데 비해, 직업재활에 투자하는 비용은 0.18% 정도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산재장애인의 재활사업비를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재활에 대한 투자확대는 단기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비용상승 초래하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산재장애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화하고, 산재보험금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제고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산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의 실시 결과, 평균 노동능력 상실도가 지난 20년 동안 32.9%에서 20.6%로 감소된 독일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재활사업비의 투자확대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재활공학서비스의 강화

일상생활능력정도는 보장구나 편의시설 등 재활공학서비스로 보강된 신체기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신체적 손상만을 나타내는 장애등급과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산재장애인의 장애정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능력정도 역시,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신체적 손상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능력정도를 높일 수 있는 재활공학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이러한 일상생활능력의 향상은, 산재로 인한 장애발생 이후, 이들의 잔존능력을 최대화하여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적 치료 뿐만 아니라 보조장구, 재활용구나 편의시설을 제공할 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러한 서비스로는 산재장애인의 신체적인 장애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보조장구를 위해 산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

는 주택내부를 개조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재활공학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노동부의 산재의료관리원 산하에 있는 전문연구기관인 재활공학연구센터를 활성화하여 재활공학서비스의 보급확대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재활공학서비스의 경우 연구개발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연구개발비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예산지원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3) 직업재활서비스의 개선 및 강화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직업재활서비스의 이용여부는 재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비효과성보다는 현재 실시 중인 직업훈련서비스를 산재장애인 대부분이 이용한 적이 없다는 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직업재활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응답자의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직업재활서비스의 효과성이 없다는 측면 이외에도 효과성을 검증할 만큼 이용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크다. 따라서 산재장애인의 직업훈련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직업재활서비스를 개선 및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직업재활훈련원의 내실화를 들 수 있는데, 현재 안산과 광주 2곳에 있는 직업재활훈련원의 경우 양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훈련내용 및 시설부족, 취업과의 연계부족 등으로 산재장애인들의 이용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직업재활훈련시설을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내실화를 통해 충분한 노하우를 습득한 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직업재활훈련원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재활훈련시설에의 투자확대가 시급한 선결요건이다.

둘째,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의 개선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직업훈련 지원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훈련과 취업과의 연계강화를 도모할 필요성으로 직업재활훈련원에 직업상담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으며, 재취업이나 자영업에 종사하게 되는 산재장애인이 실패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할 필요가 있다. 직업재활과정을 이수한 이후, 일반고용된 경우에는 직업훈련교사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자영업을 희망하는 경우는 자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위한 창업지도교육을 실시하고, 희망자에 한해서는 직업재활훈련시설에 설치한 자립작업장에서 1-2년간의 사후관리를 통해 충분한 노하우를 습득한 후 퇴소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직업훈련지원체계의 유연화가 요구된다. 직업훈련의 기본방향은, 산재장애인이 원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장애인들이 원하는 직업훈련원이나 사설학원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직업훈련기간 3개월-1년 이내에 훈련지원금이 1인당 100만원 불과하여, 향후 훈련비 지원수준을 현

실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 4) 사회심리적 재활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산재장애인의 장애에 대한 인식정도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장애등급, 일상생활능력정도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재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산재장애인의 신체기능이 재취업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고 인식하는 정도 등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도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산재장애인 재활서비스체계의 방향설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회사업적 개입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장애를 빨리 수용하고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력에 대한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과 가족들의 지원을 강화하는 개입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장애인 상담 및 교육, 자기주장훈련프로그램, 가족지원 및 교육, 정보제공, 사회적응 및 직장적응 등의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산재병원이나 산재지정병원에서는 산재환자들을 위한 사회심리재활서비스를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병원측에서 사회심리재활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산재보험에 수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심리재활서비스를 산재보험에 수가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산재장애인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재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별상담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산재장애인을 위한 각종 재활서비스 및 이용가능한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내에 개별상담원을 설치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노동부. 1997(a). 산재보험연보.  
\_\_\_\_\_. 1997(b). 산업재해분석.
- 박수경. 1997. 산재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성규. 1998. "노·사·정 사회적 합의가 장애인 복지정책에 주는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 36호. pp. 259-283.
- 이선우. 1997. "장애인 취업 및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 프로빗을 이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33호. pp. 287-313.
- 한국노동연구원. 1998. 재활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I)에 관한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a).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_\_\_\_\_. 1995(b). 장애인 취업실태와 고용의 경제적 효과.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8(a). Working Paper, 고용촉진국.  
\_\_\_\_\_. 1998(b). 산업재해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 Aulmann. H. 1996. "Die Rehabilitation im deutschen system der Sozialen sicherheit nuter besonderer Brucksichtigung der versicherung gegen arbeitssunfalle und berufkrankheiten(독일 사회보장시스템의 재활제도, 산업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산재보험의 재활제도)". 통일전후 산재보험과 재활체계에 관한 한·독 세미나, 근로복지공단. pp. 167-215.
- Belgrave, F. Z. 1991. "Psychological predictors of adjustment to disability in Afican Americans." *Journal of Rehabilitation*. Jan/Feb/Mar. pp. 37-40.
- Crip. R. 1990. "Return to work after spinal cord injury." *Journal of Rehabilitation*. Jan/Feb/Mar. pp. 28-35.
- Lee, P. W. et al. 1985. "Psychosocial ajustment of voctrms of occupational hand injurie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Vol. 20, No. 5. pp. 493-497.
- McCarthy, H. 1988. "Attitudes that affect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ttitudes toword persons with disabilities*. edited by Yuker, H. F.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pp. 246-261.
- Rosenfield, S. 1992. "Factors contributing to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of the chronic mentally ill."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33(Dec.). pp. 299-315.

- Yuker, H. E., J. R. Block and J. H. Young, 1966. *The Measurement of Attitude disabled persons*.  
Albertson, New York: Human Resources Center.
- Scherodel, J. and R. Jacobson. 1978. *Employer attitude towards hir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Albertson, NY:Human Resouces Center.

## Abstract

###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Reemployment of the Disabled Workers owing to Industrial Injury in Korea**

Park, Soo Kyeong

The ultimate goal of rehabilitation is social integration. Reemployment is, for the disabled workers, the primary source of not only income, but also identity and interaction. Unfortunately, for most disabled workers employment represents only a yet-to-be-fulfilled hope, a close but inaccessible goal, a daily reminder that they are not among the major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reemployment rate in the industrial injured and to find factors affecting reemployment of disabled workers owing to industrial injury, and to make policy implication for the better industrial injury compensation rehabilitation system.

The data were obtained through telephone interview with disabled worker who completed work injury compensation process in 1996-1997. The final sample was consisted of 1,060 respondents.

The major findings were that almost 1 out of 3 disabled worker returned to work, and that the factor affecting reemployment of the disabled workers were severity injury, ADL(activity of Daily Living), the perception of disability severity, controlling for the demographic factors such as sex, age, education, marital status. The results indicated that psychosocial factors as well as physical function had influences on returning to work. The current findings suggests that rehabilitation services and policy aimed at enhanc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 services, and improving psychosocial resources should be considered by rehabilitation professionals and policy makers.

**Tel: 0357-539-1740, 1743**

**Fax: 0357-539-1740**

**E-mail: skeong@ns.kli.re.kr**